

출산·육아 부담 줄여 부모의 삶의 질 개선한다



전남도가 최근 실시한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에서 무안 홍정아씨의 '웃음아 이리 와'가 대상(오른쪽)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여수 김동성씨의 '셋이라 행복해요' (왼쪽)와 나주 류수진씨의 '우리 가족이 최고' (가운데)가 선정됐다.



저출산 대책 어떤 변화 담았나

출산지원금 지원

-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 출산지원금 지원.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 기존 5개 질환 → 11개로 확대
-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한 확대로 분만에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단태아 60, 다태아 100만원씩 각 10만원 인상
-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건보 부담률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경감 (평균 본인부담액 16만5천원 → 5만6천원 상당으로 66% 감소. 감기 등으로 동네병원 방문시 초진료 3천200원 → 700원)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20% → 150%까지 확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 이혼금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90%까지 높임
- 아이돌보미 현재 2만3천 → 4만3천명 확대, 2022년까지 이용 아동 규모 9만 → 18만명
- 공동육아나눔터 113 → 160개 시군구로 확대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 부모, 1년 육아휴직 사용했다라도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 가능. (상한액 200만원 기준 통상임금의 100% 받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향 사항

- 급여 지원 상한액 200만원 → 250만원
- 아빠·엄마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방안도 추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 현행 3일 → 10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한해 유급휴가 5일분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

자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아이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뒤편

<18> 문재인 정부 저출산 대책

주거복지 신혼·청년 163만가구 공급 ... 취득세 감면

워라밸 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동 성장 지원 3인 가구 월 553만원까지 돌봄 확대

차별 해소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 지원책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신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편의를 높인다.

◇한부모 가정 지원 현실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 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된다. 아동양육비는 지금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만 월 13만원씩 지급됐지만, 앞으로 대상 연령대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 17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